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11 19주기를 맞아 9/11 노동자 보호 태스크 포스 법안 재승인에 서명

법안에 따라 태스크 포스는 2025년 6월까지 운영 연장

법안은 장애 청구 처리 시간, 공무원 장애 보장 부족, 9/11 대응에 참여한 개인 확인 등을 분석하도록 태스크 포스의 권한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9/11 노동자 보호 태스크 포스(September 11 Workers Protection Task Force)를 재승인하는 법안(S08129/A10249)에 서명했습니다. 2005년 설립된 태스크 포스는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에서 구조, 회복, 비승 대응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건강 상의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이러한 노동자의 장애를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제한을 확인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접근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만듭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감한 영웅들은 뉴욕의 9/11 복구를 돕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들이 필요한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뉴욕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태스크 포스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유독물질 유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 상의 문제, 산재 퇴직 수당 관련 기존 법 및 규정의 한계, 주정부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연방 자금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까지 태스크 포스의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또한 장애 청구에 대한 평균 처리 시간 분석, 청구 승인률, 비상 대응에 참여했지만 당시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장애 보장 부족, 수당 재청구 과정 및 기회, 9/11 대응 참여자 확인 등을 포함하도록 태스크 포스 권한 범위를 필요한 만큼 확대합니다.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응급 대원들은 여전히 이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9/11 관련 암 및 기타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또한 그 끔찍한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웅적 행보를 보여준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직원과 응급 요원들이 필요한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며, 오늘 저의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Stacey Pheffer Ama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9/11 노동자 보호 태스크 포스(September 11th Worker Protection Task Force)는 우리 도시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9/11 복구에 참여한 응급 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뉴욕주 상원에서 협력하여 이 법안을 통과를 추진해주신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